



정부, 2012년 예산(안) 편성

최 원 선임연구원

- 2012년 예산(안)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309조 1,000억 원보다 5.5% 늘어난 326조 1,000억 원으로, 정부 총수입은 올해 314조 4,000억 원보다 9.5% 늘어난 344조 1,0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됨.
 - 분야별 정부 지출안을 살펴보면,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이 6.4% 증가한 92조 원으로 편성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일반공공행정이 8.2% 증가한 56조 6,000억 원, 교육 분야가 9.3% 증가한 45조 1,000억 원으로 결정됨.
 - 정부 총수입의 경우에는 국세수입이 9.7% 증가한 205조 9,000억 원, 세외수입이 16.7% 늘어난 28조 6,000억 원, 기금수입이 7.2% 증가한 109조 6,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.
 - 2012년 관리대상수지¹⁾의 경우 14조 3,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-1.0%가 예상되며, 국가채무의 경우 448조 2,000억 원으로 GDP 대비 32.8%가 예상되어 각각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.
 - 정부는 동 예산(안) 편성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목표시점을 2013년으로 수정하였으며, 달성하게 될 2013년 예상 재정수지(관리대상수지)도 기존 6조 2,000억 원 적자에서 2,000억 원 흑자로 변경함.

- 정부는 2012년 예산(안) 3대 중점투자 사항으로 일자리 확충, 서민·중산층의 맞춤형 복지,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시함.
 - 정부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²⁾ 관련 예산을 1조 4,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38.9% 늘리기로 결정함.
 - 정부는 서민·중산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,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,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2011년 20조 8,000억 원에서 2012년 25조 2,000억 원으로 21.0% 증액하기로 함.

1) 한 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(국민연금, 사학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)을 차감하여 산출함.

2) 청년 창업 활성화,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, 문화·관광·글로벌 일자리,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있음.

- 정부는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투자를 통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며, 관련 예산을 2011년 56조 4,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원으로 8.1% 증액하여 편성함.

(2012년 예산(안) 등, 기재부, 9/27)